

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0. 11. 30.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규 식

1. 제 출 자: 성동구청장

2. 제안이유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축하금 지급 규정 정비(안 제4조)

- 첫째아: 20만원 지원 규정을 신설
- 둘째아: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별첨

다. 기 타

- 1) 입법예고(2020. 10. 14. ~ 11. 3.)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결과, 신설·강화 규제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5)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아동 양육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혼인 감소 등 출산에 미치는 요인들의 변화에 따라 2001년부터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현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18명으로 1970년대 이래로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하면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회구조는 결혼과 출산 필요성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저출산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이에 출산을 축하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며,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0개 구에서 첫째 아이에게 10만원에서 50만원의 출산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미지급중인 3개 구¹⁾도 첫째아 20만원, 둘째아 40만원 지급을 위

1) 강북구, 구로구, 송파구(양천구는 미지급)

해 개정 중입니다. 또한 우리 구도 구청장협의회 복지대타협 통일 기준안을 기초로 첫째아 출산가구에 20만원을 지원하는 기준을 신설하고, 둘째아 지급 기준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20만원 증액)하여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본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 향후 저출산 제고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출산율 회복을 위한 인구정책이 도입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투자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속적 거주 및 경제활동을 위한 주거와 일자리 정책, 나아가 교육 등 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 정책 수행이 중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지역 내 다양한 보육 자원을 키우면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여 공동육아의 터전을 마련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확대한다면 주민의 삶과 직결된 생활단위 인프라와 안전망 확충으로 정책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참고 : 성동구 출산순위 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명)

출산 순위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총 계	2,753	2,531	2,462	2,346	2,191
첫째아이	1,694	1,586	1,517	1,547	1,536
둘째아이	919	796	833	696	588
셋째아이	134	141	103	97	67
미 상	6	8	9	6	0